

제1절 축산업과 가축현황

1. 축산업 개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쌀과 맥류를 위주로 생산을 하고, 축산은 다만 부업으로 발전해 옴으로써 축산은 단지 곡물생산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서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및 개들을 사육할 때 벼짚과 쌀겨, 보릿겨, 콩깍지, 음식물찌꺼기 및 산야초 등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고, 이들 가축의 힘을 농업용 동력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소, 돼지 및 닭 등의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곡물류의 생산과 축산물의 생산은 서로 보완의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축산업은 1960년대에 들어 정부가 축산기반의 구축과 퇴비증산에 의한 지력증진을 목표로 “축산농가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축산시책에 따라 경북도내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낙농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축산이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1968년부터 농어민소득증대 4개년 사업을 수립하여 초지조성과 함께 한우 및 젖소의 사육을 육성하여 낙농업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식생활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으로써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축산업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더욱 전문화, 기업화 및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1990년 이전의 울진군 축산업은 군민 총 생산량 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970년 25.8%에서 1989년에는 1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 조수입 중 축산부분의 비중은 1970년 5.6%에서 1989년 1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이 계속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5~6년, 돼지는 3~5년의 주기로 가격의 등락이 있었으며, 축산물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고, 호당 사육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사육시설도 낙후되어 구조의 취약성을 내포함으로써 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축산물의 유통단계는 4단계 내외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수급량의 증가에 상응하는 유통시설의 확충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축산폐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규강화 등으로 축산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초식가축에 알맞은 조사료의 생산기반의 미흡으로 생산비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다.

울진군에서는 축산업이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는 근간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장기발전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업은 농업부문 중 타 분야 보다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군과 축산농가가 합심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연도별 가축의 사육현황

연도별 가축의 사육가구 및 마리 수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367>과 같다.

<표 367> 연도별 가축 사육 가구 및 마리 수의 현황

(단위 : 마리)

연별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가구	마리 수	사육가구	마리 수	사육가구	마리 수	사육가구	마리 수
1960	7,642	9,201	-	-	1,378	2,578	-	32,831
1965	-	11,557	-	-	-	2,075	-	21,879
1970	-	9,892	-	3	-	2,603	-	68,099
1975	8,151	10,061	1	3	1,437	3,326	5,807	35,778
1980	5,545	6,875	3	22	757	2,526	2,210	11,388
1985	5,962	12,039	5	32	334	4,680	905	21,805
1990	3,785	6,707	9	244	131	8,369	527	26,385
1996	2,787	11,096	11	270	44	8,816	579	9,953
2000	1,486	5,876	2	111	37	10,616	412	10,027
2005	1,138	6,300	2	118	20	11,575	331	34,910
2010	976	10,896	-	-	16	13,707	522	15,093
2013	633	11,043	-	-	4	4,744	461	13,550
2014	546	10,669	-	-	4	4,688	190	8,649
2015	489	10,040	-	-	5	4,833	374	7,968
2016	459	10,293	-	-	5	5,280	182	13,807
2017	425	10,327	-	-	5	5,073	390	14,245

연별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1960	-	-	-	869	-	-	-	-	-	-
1965	-	-	-	1,104	-	-	-	-	-	-
1970	-	-	874	-	-	-	-	-	-	770
1975	-	-	1,371	1,986	-	-	-	-	1,077	2,267
1980	1	3	685	1,183	-	-	7	42	434	1,178
1985	3	4	765	2,131	-	-	12	81	144	1,364
1990	-	-	174	536	-	-	13	120	51	150
1996	-	-	321	2,458	-	-	22	303	18	119
2000	-	-	187	1,180	-	-	23	556	44	329
2005	-	-	156	996	-	-	16	330	11	183
2010	3	5	38	383	-	-	8	151	20	150
2013	3	26	37	482	-	-	8	166	23	219
2014	3	16	39	446	2	3	6	90	24	260
2015	2	25	42	463	-	-	8	161	18	211
2016	1	19	33	442	-	-	5	119	13	1,087
2017	1	18	36	592	-	-	5	108	22	776

연별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1960	-	-	-	-	-	-	-	-	-	755
1965	-	-	-	-	-	-	-	-	-	1,003
1970	-	807	-	11	-	-	-	29	300	870
1975	1,860	2,026	289	892	-	-	7	13	275	1,052
1980	1,378	1,517	135	849	-	-	1	2	171	1,787
1985	678	871	54	259	-	-	-	-	256	3,066
1990	959	2,062	15	71	-	-	-	-	217	3,235
1996	961	3,755	32	229	-	-	5	13	141	3,586
2000	646	4,193	25	595	-	-	-	-	214	8,694
2005	526	3,841	67	1,212	-	-	-	-	151	13,864
2010	556	3,872	7	38	4	10	1	2	200	12,716

연별	개		오리		칠면조		거위		꿀벌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2013	292	3,302	8	27	3	6	1	3	126	11,746
2014	212	1,265	8	9	-	-	-	-	143	11,991
2015	388	2,900	5	27	-	-	-	-	118	12,370
2016	231	3,224	10	63	-	-	-	-	133	14,087
2017	302	2,929	9	64	8	25	10	37	291	28,667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61~2018)

한우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 8,151호의 농가에서 10,061마리를 사육하였다. 1980년 5,545호의 농가에서 6,875마리로 조금 감소하였으나 1985년에는 5,962호의 농가에서 12,039마리의 한우를 사육함으로써 다시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에는 3,785호, 6,707마리의 사육두수, 1996년에 2,787호, 11,096마리, 2010년에는 976호의 농가에서 10,896마리, 2017년에는 425호의 농가에서 10,327마리의 한우를 사육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에 이르러 한우사육 농가 수는 많이 감소되었고 사육두수는 연도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사육농가 수의 감소폭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우 사육 농가의 사육규모가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젓소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 1호의 사육농가에서 3마리를 사육하였고, 1985년에 5호의 농가에서 32마리의 젓소를 사육하였으며, 1996년에는 11호의 농가가 270마리, 2005년에 2호의 농가에서 118마리의 젓소를 사육하였다. 사육두수는 매우 적었지만 초지가 거의 없으면서 그나마 젓소의 사육 농가수, 사육두수 및 농가 호당 사육 마리수가 1975년에 3마리에서 1996년에 평균 27마리, 2005년에 59마리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돼지의 사육현황은 1975년 1,437호에서 3,326마리를 사육하였으나 1985년에는 334호의 농가에서 4,680마리를 사육하였으며, 2000년에는 37호에서 10,610마리, 2010년 16호에서 13,707마리, 2017년에는 5호 농가에서 5,073마리를 사육하여 호당 사육두수는 약 1,015마리 정도를 사육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사육 농가수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사육 마리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돼지 역시 사육규모가 하나의 기업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건강식품 및 한약재로 그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녹용 및 녹혈을 생산하는 사슴의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에 처음으로 7호의 농가에서 42마리의 사슴을 소규모로 사육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13호에서 120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게 되었고, 2000년 23호의 농가에서 556마리, 2010년 8호에서 151마리, 2017년에는 5호농가에서 108마리를 사육하여 최근 사육두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까지 해마다 사슴 농장수 및 사육

두수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한약재로서 소비되는 녹용의 수량도 매우 많으며, 특히 생녹용의 형태로 판매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 더욱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녹용은 생녹용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므로 국내의 사슴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생녹용이 많이 판매되어 사슴사육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개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 1,860호에서 2,026마리를 사육하였으나 1985년에는 678호에서 871마리로 감소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다시 사육 농가수 및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보다 사육농가호수는 적었지만 사육 마리수는 3,000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양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는 1,371호에서 1,986마리를 사육하여 비교적 많이 사육되었으나, 사육농가호수는 많이 감소되어 2017년에 36호에서 593마리를 사육하여 사육농가 수는 2.6%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규모는 16.4마리로 사육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토끼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 1,077호에서 2,267마리를 사육하였으나, 2005년에는 단지 11호에서 183마리만을 사육하여 가축으로서의 토끼의 사육은 거의 사라졌다가 2010년 이후 평균 20가구에서 45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닭의 사육현황은 1975년에 5,807호에서 35,778마리를 사육하여 1970대 이후 최대의 사육 마리 수를 기록한 이후 사육규모는 계속 감소되어 2017년에 390호에서 14,245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오리의 사육규모도 역시 줄어들어 소수의 농가에서만 사육하고 있다.

꿀벌의 사육현황 추이는 사육호수는 1970년에 300호를 기록하여 제일 많았으며, 이후 사육호수는 감소되었지만, 사육마리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13,864마리, 2017년에는 291호 가구에서 28,66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벌꿀의 사육이 1970년대에는 농가의 조그만 부업으로 토종 밀 양봉벌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1985년 이후에 들어서서는 사육농가의 주 업종으로 사육벌통이 대규모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건강식품의 원료로 천연벌꿀의 많이 소비되어 생산농가의 소득이 증가하여 벌꿀의 생산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었다.